

SNK, 넷마블과 'KOF' IP 연장 계약 체결

- 넷마블에 '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' 서비스 기간 연장하기로
- SNK "새해에는 더 많은 게임사들과 제휴 할 것"



SNK의 대표 IP 'KOF' 기반, 넷마블이 개발한 모바일 액션 RPG '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'

SNK인터랙티브(대표 전세환)가 넷마블과 '더 킹 오브 파이터즈(이하 KOF)'의 IP(지식재산권) 제휴를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금일(5일) 밝혔다.

이번 연장계약으로 SNK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격투게임 'KOF' IP는 넷마블이 자체 개발 후 직접 퍼블리싱 중인 모바일 액션 RPG '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'를 향후 계속 즐길 수 있게 됐다.

'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'는 2018년 7월 일본에 먼저 출시된데 이어, 출시 5일 만에 일본 양대 앱마켓 순위 Top 10에 이름을 올리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. 더불어 게임 유저들 간의 반응과 호평에 힘 입어 2019년 5월에는 국내에 서비스하게 됐으며, 출시 3일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을 기록한 바 있다..

SNK 관계자는 "더 킹 오브 파이터즈는 지금의 SNK가 있게 한 당사의 IP중 하나로 새해에는 더 많은 게임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심이 될 것이다"며 "본연의 정통성은 이어가면서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시도하는 마음으로 향후 세계적인 격투게임이 될 것이란 점에 일절 의심 없다"고 밝혔다.



SNK의 KOF 시리즈 신작인 '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(KOF XV)'

한편, SNK의 KOF 시리즈 작품들은 아케이드 게임 뿐만 아니라 다년간 발전해 온 PS, XBOX 플랫폼에도 성공적으로 발매했으며, 이후 STEAM 등 PC 플랫폼에도 상륙해 전세계 게임 유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. 아울러 최근 SNK는 KOF 시리즈 신작인 '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'의 공식 트레일러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.<끝>

©SNK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.

© Netmarble Corp. & Netmarble Neo Inc. All Rights Reserved.

<자료 문의>

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(010-5477-0979 / skchun@snkcorp.co.kr)

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(010-4491-7537 / eslee@snkcorp.co.kr)

<SNK 인터랙티브 소개>

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'더 킹 오브 파이터즈' '아랑전설' '메탈슬러그' '사무라이 스피리츠(사무라이 쇼다운)'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(IP)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,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.